

관세청, 미국·네덜란드와 마약단속 국제공조 박차

- 한-미 작전 「은밀한 청소(OP. Silent Sweeper) Ⅲ」, 한-네 작전 「웜-홀(OP. Worm-Hole) IV」 실시
- 작전 중 미국발 마약류 39건, 7.1Kg, 네덜란드발 6건, 1.9Kg 적발
- 상반기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과 합동작전도 성공적
- 국제공조 확대 지속 계획... 본청에 마약 정보 전담조직 신설도 추진

관세청은 미국 주요 마약단속 기관*들과 지난 6월 한 달간 「제3차 한-미 마약밀수 합동 단속 작전(작전명: 은밀한 청소[OP. Silent Sweeper Ⅲ])」을 실시해 총 39건, 7.1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미(美) 관세국경보호청(CBP),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청(DEA)

올해로 세 번째 실시된 합동단속 작전은 양국 관세 당국이 미국발 한국행 마약 은닉 우범 대상에 대해 현지 출발 단계부터 국내 도착 단계까지 정보 분석과 검사를 강화하는 작전이다.

양국은 인천공항 특송센터와 미국 LA 공항에 작전 통제 본부를 설치하고, 사전 정보교환 및 상호 직원 파견을 통해 합동 정보분석·선별·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작전 기간 중 마약류가 적발되면 송·수하인, 밀수경로, 은닉 수법 등의 정보를 즉각 공유하고 각 세관 당국이 이를 확장 분석하여 관련 대상을 집중 검사하는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가동했다.

< 한-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개요 >

- [작전기간] '26. 6. 1.(월) ~ 6. 30.(화) / 1개월
- [운영체계] 인천공항 특송센터 및 미(美) LA 공항에 통제본부(OCU)* 운영
 - * Operation Coordination Unit / 현지에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총괄·조정 역할 수행
- [운영내용] 미국발(發) 한국행(行) 마약 은닉 의심 특송화물, 국제우편, 항공여행자 및 항공화물 등에 대해 양국 통제본부에서 합동 정보분석·선별·검사

이번 작전 기간 동안 적발된 미국발 마약류는 필로폰 1.8kg, 대마 1.1kg, 마약류 성분 함유 불법 의약품* 4.2kg 등 총 39건, 7.1kg에 달한다.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트로판, 메틸페니데이트 등

이로써 총 세 차례에 걸친 한-미 합동단속 작전의 누적 성과는 총 74건, 40.9kg에 달한다. 이는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13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 제1~3차 작전별 마약류 적발 건수·중량 >

(단위: 건 g)

차 수	기 간	실 적		
		전체 건수	1주 평균 건수	중량
1차	'24.4.29. ~ 5.3. (1주)	5	5.0	2,489
2차	'25.6.23. ~ 7.18. (4주)	30	7.5	31,361*
3차	'26.6.1. ~ 6.30. (1개월)	39	9.7	7,089
합 계		74	-	40,939

* 항공여행자에 의한 대마오일 18.5kg 단일 대형 적발건 포함

적발내역을 분석해 보면, 주평균 적발건수가 1차 작전 당시 5건에서 3차 작전 9.7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필로폰과 대마류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러쉬*가 최초로 적발됐으며, 마약 성분을 함유한 불법 의약품 반입량이 지난해 1kg에서 올해 4kg으로 증가해 30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식약처 지정 1군 임시마약류, 아질산알킬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흡입성 물질로 주로 성적 흥분 목적으로 사용되며, 오·남용 시 어지럼증, 저혈압, 호흡곤란, 의식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 초래

< 제1~3차 작전별 마약류 품목별 적발 실적 비교 >

(단위: g)

차 수	대마류*	필로폰	케타민	러쉬	기타**	합계
1차	2,381	-	-	-	108	2,489
2차	24,593	4,730	1,007	-	1,031	31,361
3차	1,075	1,769	-	80	4,165	7,089
합 계	28,049	6,499	1,007	80	5,304	40,939

* 대마초 및 대마 오일, 대마 카트리지, 대마 젤리, 대마 롤 등 대마의 환각 성분인 THC가 함유된 제품군

**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 덱스트로메트로판, 메틸페니데이트 등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

한편, 관세청은 미국 외에도 마약 주요 출발국들과의 국제공조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네덜란드 관세당국과 「제4차 한-네덜란드 마약밀수 합동 단속 작전(OP. Worm Hole IV)」을 실시하여 네덜란드발 마약류 총 6건(1.9kg) 적발했으며, 올 상반기 중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등 동남아발 마약밀수 차단 작전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초국가범죄인 마약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긴밀한 공조와 정보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국경 단계에서의 정밀한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고 해외 마약 공급조직을 추적하기 위해 관세청 본청 내 ‘마약정보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요 출발국의 단속 기관들과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하여 글로벌 합동단속의 표준을 선도하고,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별첨: 한-미 합동단속 작전 수행 사진 6매.

담당 부서	관세청 국제조사과	책임자	과 장	이나애 (042-481-7740)
		담당자	사무관	김준형 (042-481-7758)

